

온갖 역경 허문 '불도저 인생' 신화의 사나이



1950년 대 포항중학교 시절의 이명박 당선자.



지난 64년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6·3시위와 관련, 재판받고 있는 모습.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이 당선자.



1981년 현대그룹 재직시 정주영회장과 함께 자리해 노래하는 모습.



셋째 딸 수연씨의 결혼식 기념사진. 뒷줄 왼쪽부터 아들 시형, 둘째 딸 승연, 수연씨 부부, 큰 딸 주연씨 부부.

■ 이명박 당선자 '샐러리맨 신화'에서 '대권 신화'까지

노점상 소년서 CEO... 국회의원·지자체장·행정수장 '그랜드 슬램'

샐러리맨의 살아있는 신화, 청계천 신화에 이른 대권신화. 핏이게 가난했던 목부(牧夫)의 아들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유년기와 청년기의 고난과 풍파를 딛고 마침내 청와대의 주인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이로써 이 당선자는 CEO(최고경영자) 출신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기록을 세웠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서울시장)을 거쳐 행정수반에 오르는 '그랜드 슬램'까지 달성했다.

시장서 풀뿔 팔아

◇유소년기=이 당선자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가난한 목장 노동자인 아버지 이충우(1981년 작고)씨와 어머니 채태원(1964년 작고)씨의 4남3녀 중 다섯째로 태어난 뒤 1945년 조국이 해방되자 가족과 함께 아버지 고향인 포항으로 이주했다. 어머니가 '차마쪽에 보름달을 안는 꿈을 꿴다'고 해서 '명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한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초등 학교 시절부터 생활전선에 나서, 김밥·성남·풀빵·빵튀기·과일·생선·웃감 등을 팔며 고향으로 포항 동지상고 야간부를 졸업했다.

환경미화원 학생회장

◇대학시절=1959년 12월 이 당선자는 고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다. 이 당선자의 부모는 이태원 관자촌에 단칸방을 얻어 놓고 시장에서 노점상을 했다. 생존만이 유일한 과제였던 그때 그는 '돈이 없어 중퇴하더라도 고졸보다는 낮겠지'라는 생각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청계천 현책방에서 책을 얻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불쭌 깨달라"는 노동자들의 원성을 들어가며 공부한 끝에 1961년 고려대 상과대학에 합격했다.

어머니가 행상을 하던 이태원 재래시장에서 환경미화원 생활을 하며 대학에 다녔던 이 당선자는 3학년 때 상대 학생회장에 당선돼, 한·일 국교정상화를 반대하는 6·3 시위를 주도했다가 서대문형무소에서 4개월간 복역하기도 했다.

현대의 전설...46세에 회장

◇현대건설 시기=이 당선자는 대학 졸업 후 운동권 학생이라는 이유로 취직을 할 수 없게 되자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 젊은이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자고 하는데, 국가가 그 길을 막는다면 국가는 젊은이에게 영원한 빛을 지는 것이다'고 편지를 보내 현대건설 입사에 성공했다.

이 당선자는 입사 2년도 안 돼 대리, 5년 만인 29살에 이사, 12년 만인 35살에 사장에 오르는 등 초고속 승진했다.

그는 46살에 회장이 됐으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인천제철 등 현대 계열 10여 개사의 최고경영자를 지냈다. 그는 현대건설 시절 불도저를 해체 조립하며 기계 구조를 공부하던 일, 태극서 목숨 걸고 회사 금고를 지키던 이야기, 청와대의 자재 주문을 맞추려던 열 공장 사장들과 불도저로 땅을 파가며 담판을 벌인 일 등 수많은 에피소드를 만들었다.

그는 또 싱가포르 리관유 총리,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 중국의 장쩌민 주석,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등과 교류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CEO로서 국제적인 감각을 폭넓게 익혀 왔다. 또 세계에서 세번째로 긴 말레이시아 페낭대교를 건설하고, 이라크 화력발전소를 짓는 등 열사의 나라에서부터 동토의 시베리아 등 지구촌 방방곡곡을 누비며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경영자로 자리매김했다.

정계 진출 서울시장

◇정계 입문=이 당선자는 1992년 초, 대선 출마를 선언한 고 정주영 회장과 결별했다. 그 대선 그해 3월 여당인 민주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계에 발을 들였다. 그러나 '기업인 이명박'에게 정지판은 녹록치 않았다. 1995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정원식 전 국무총리에게 패배했으며 다음해 총선에서는 종로구에 출마해 이종찬 후보와 노무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1998년에 다시 서울시장 경선에 도전, 최병렬씨와 경쟁했지만 선거법 재판이 끝나지 않아 의원직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에서 1년여 와신상담하던 그가 1999년 말 한국으로 돌아와 당시로선 생소하던 인터넷뱅킹 사업을 시작하면서 만난 사람이 최근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BBK 의혹'의 핵심 김경준씨다. 의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던 차에 김씨가 '수익률 조작' 등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자 사업관계를 청산했다.

하지만, 이 당선자는 2002년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화려하게 복귀해 4년 동안 청계천 복원, 대중교통체계 개편, 서울 숲과 서울광장 조성 등 굵직한 사업들을 해냈다.

치열한 경선 뚫고 대권 도전

◇대선 출마와 당선=서울시장 퇴임 후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누구보다도 빨리 대선 전선에 뛰어들어 이 당선자는 박근혜 전 대표와의 치열한 경선을 뚫고 한나라당 후보가 됐으며 'BBK 의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출마라는 난관 속에서도 무난하게 범여권 후보들을 제치고 청와대의 주인이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명박 당선자 가계 4남 3녀 중 다섯째...슬하에 1남 3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4남 3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그는 둘째 누나와 막내 동생은 6·25 전쟁 중에 잃었다. 이 당선자의 큰형 상은씨는 ㈜다스 회장으로 이번 BBK 의혹 사건 때 언론에 자주 거론됐으며 둘째 형인 이상득 국회의장은 동생은 제일의 후원자 역할을 했다.

이 당선자는 결혼한 지 37년 된 부인 김윤옥 여사와의 사이에 1남3녀를 뒀다. 이 당선자는 현대건설 이사가

던 1970년 동지상고 은사의 소개로 큰 사위는 검사 출신으로 현재 삼성화재 법무담당 사무보인 이상주(37)씨, 둘째 사위는 서울대병원 내과 전문의 최의근(34)씨, 셋째 사위는 한국타이어 부사장 조현범(35)씨다. 조씨는 효성그룹 3세 경영자인 조현준 효성ITX 사장과 사촌 간이다. 아들 시형(29)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국내 외국계 금융사에서 일하다 퇴사했으며, 미혼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명박 프로필	
출생	1941년 12월 20일 일본 오사카(大阪)
학력	경주 지역 국립고려 24세 중학교 졸업, 포항 동지상고,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신체	키 172cm, 몸무게 65kg, 혈액형 B형
경력	근북부 현대사원-기안지주(주)이사
가족	부인 김윤옥(49세) 1남3녀
재산	353억9천5천만 원
남편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남녀	1991년~1992년 원수(원수) 재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교	기독교
주요 경력	6.25동지회 회장(1992~1994),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1997~1999), 서울 지하철 3호선(1999~2000), 서울 지하철 3호선(1999~2000)
저서	신화는 없다, 청계천이 만든 나는 희망이 보인다, 청계천은 지대로 흐른다
영역	국회, 전국, 지방
별칭	현대건설사-불도저, 흥선총통의 남자

2007년 수입 디젤 승용차 판매 1위
해물 닭은 차, 구조 3675SW HDX

307 SW

현대자동차 (Hyundai Motor)

정치적 고비마다 뒷심보텐 '원군'

■ 이명박 당선자 부인 김윤옥 여사 '가정내 야당'·'Mrs. 쓴소리'로 불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서울시장 퇴임 이후 1년반 동안 치열한 당내 경선과 본선을 뚫고 대통령직에 오르기까지는 부인 김윤옥 여사의 공이 절대적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김 여사는 이 기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보다는 남편이 챙기지 못하는 소외계층, 불교계, 중도시 등을 주로 도는 '그림자 내조'를 통해 이 당선자를 음으로 양으로 보필해 왔다. 공식 선거전 개시 이후에도 이 당선자와 함께 하는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봉사활동 등을 통해 차분히 민심을 챙겼다.

김 여사는 1947년 3월26일 진주에서 공무원인 부친 김시구씨와 모친 최덕례씨의 7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김 여사는 대구 수창초교와 대구여중·대구여고를 거쳐 이화여대로 진학해 보건교육을 전공했다.

김 여사는 대학 졸업 직후인 1970년 큰 오빠의 소개로 당시 현대건설 이사였던 이 당선자를 만났다. 큰 오빠의 친구가 이 당선자가 다니던 동지상고 영어선생이었는데, 이 당선자를 눈여겨보다가 적극 추천한 것이다. 당시 이 당선자는 현대건설 이사가

지만 결혼생활이 부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당선자의 자서전에 따르면 마포에 있는 14평짜리 아파트에서 사글세로 신혼집을 마련, 3년 동안 8번이나 이사를 했다.

이 당선자가 부르는 김 여사의 별명은 '가정내 야당'. 박근혜 전 대표와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될 때도 김 여사는 "박 전 대표와 절대 싸우지 마라. 세상에 여자와 싸워 이기는 남자는 없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선 및 본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김 여사는 이 당선자 못지 않은 활약을 했다. 특히 김씨가 출연한 손수제작물(UCC) '이명박 X파일 시리즈'은 온라인 공간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김 여사는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중 고가의 명품 핸드백과 손목시계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 동생 김재정 씨가 이 당선자의 만형 이상은씨와 함께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 당선자의 재산 관리인'이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